

## ‘돈 되는 오리’

HPAI로 인해 오리 산업에 어려움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HPAI 발생농장은 물론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더욱 상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듯이 새 입식의 그날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오리농가에서 농장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리 사양관리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입추 후 관리



새끼오리가 농장에 도착하면 농장주는 새끼오리가 들어있는 상자를 육추사 안에 쌓아놓지 말고, 새끼오리 도착 즉시 사육 장소에 이동하여 조심스럽고 재빠르게 새끼오리를 균일하도록 꺼내 놓고, 몇 상자를 골라 새끼오리의 체중을 측정한다. 처음 2~3시간 동안 물을 먼저 먹게 한 후에 사료를 주는 것이 성장률, 육성률 및 사료요구율이 개선된다.

급수관리



물은 가장 중요한 영양소의 일종으로 소화와 신진대사, 호흡, 체온조절 및 배설 등에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은 체조직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20%를 손실하였을 경우 폐사할 수 있다. 특히 어린오리는 약 8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리는 신선한 기후에서는 1일/1수당 1.5리터, 더운 기후에서는 5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입추 당일 새끼오리의 탈수 예방을 위하여 물통에 비타민 제제를 타서 준다. 새끼오리는 난황으로 자체 영양분을 2~3일간 공급받기 때문에 사료를 늦게 급여해도 폐사가 발생하지 않지만 물은 즉시 공급해 주어야 각 장기의 발달을 돕고 탈수로 인한 폐사를 줄일 수 있다.

급이관리



오리의 생산성은 주로 성장률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며, 성장률은 사료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양환경이나 사료 품질에 따라 결정된다. 오리는 어릴 때에는 사료 중의 단백질 함량에 따라 발육의 차이가 크며, 후기에는 사료 중의 에너지 함량에 따라 발육의 차이가 크다. 새끼오리 도착 직후 물을 먼저 급수하고 3~4시간 후에 사료를 급여할 때 증체율과 사료효율이 개선되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물과 사료를 동시에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첫 모이 급여 시 가루사료를 그대로 급여해도 무방하지만 장거리 수송에 의한 스트레스나 탈수증이 우려될 때는 비타민제나 항생제를 희석한 물로 사료를 버무려서(손으로 쥐었다가 놓으면 다시 풀어질 정도) 1~2시간 불린 후 급여하는 것이 좋다.

습도관리



입추 당일 육추실 습도는 70%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열풍기 앞에 수반을 설치하거나, 지대를 바닥에 깔아주고 물을 뿌려주어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입추 당일 적정 습도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가장 큰 피해는 건조한 공기 흡입으로 인하여 어린 오리의 기관지 손상이다. 이러한 기관지 손상은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질, 각종 유해성분들이 아무 제약 없이 몸속으로 흡입되어 호흡기 계통의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

## 환기관리



환기팬은 여름철에는 적절한 풍속을 형성하여 오리사 안의 열과 수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체감온도를 낮춰주고, 겨울철에는 공기 교환을 조절하는 오리사의 핵심장비이다. 혹시 여러 가지 계산방법을 통해 필요한 환기량이 적게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팬의 용량은 수당 6~7cfm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또, 암모니아 수준은 항상 10ppm이하로 유지한다.

환기팬의 크기는 소형을 다수 쓰는 것 보다는 24인치에서 48인치에 이르는 대형의 것을 적절히 안배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다. 환기설비는 주기적으로 조절·청소 해 오리사내의 먼지, 불쾌한 공기, 깔짚의 수분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점등관리



입추 후 처음 며칠 동안은 새끼오리들이 사료와 물을 먹는데 불편이 없도록 긴 점등시간을 주어야 한다. 동시에 사료나 급수원에 빛이 잘 도달하도록 한다. 점등 전후로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오리들이 한곳으로 몰려 암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오리사의 광도는 5평당 30W짜리 1개 정도, 즉 30평 오리사의 경우 30W짜리 전구를 6개 정도 켜주면 충분하며 전구나 형광등을 오리사 내부에 적절히 분포시켜서 적절한 밝기를 주면 된다. 광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경우 3~5주령기에 오리들이 깃털을 쫓는 현상을 보이면 광도를 낮추도록 한다.

일령	1	2	3	4	5	6	7	8	9~사육말기
점등시간	23	23	23	22	21	20	19	18	18
광도(lux)	20								

## 온도관리



갓 부화된 새끼오리들은 35℃ 정도의 높은 온도를 요구하므로 초기 3주령까지의 온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처음 1~3일간은 육추기 아래는 32~35℃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온도를 내려주어 3주령에는 오리사 내부 온도를 15℃ 정도로 유지한다. 4주령 이후 오리들의 깃털이 다 발달되면 오리사 내부 온도가 5℃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 꼭 가온을 해줄 필요는 없다. 오리사 내부 온도가 1℃ 이하로 내려가면 급수기가 얼어서 사료섭취량과 성장이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